

독주냐 설욕이냐…도로공사·현대건설 '미리보는 챔프전'



오늘 승점 6차 1위·2위 맞대결 관심
도로공사 화력 vs 현대건설 높이 싸움

'한국도로공사의 선두 독주 굳히기냐, 아니면 설욕을 노리는 현대건설의 반격이냐.'

여자 프로배구 2025-2026 V리그 전반기에는 2강 구도를 형성한 1위 한국도로공사와 2위 현대건설이 18일 오후 7시 경기도 수원체육관에서 맞붙는다.

올 시즌 7개 구단의 전력 판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도로공사는 파죽의 10연승을 포함해 막강 전력을 과시하며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시즌 13승 2패(승점 35)를 기록, 2위 현대건설(승점 29·9승 6패)에 승점 6차로 앞서 있다.

현대건설도 3위 흥국생명(승점 22·7승 8패)과 간격을 승점 7차로 벌린 상태여서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대결은 '미리 보는 챔피언결정전'으로 불릴 만하다.

특히 도로공사는 3연승, 현대건설은 4연승 중이어서 상승세의 대충돌이다.

지난 팀은 상승세가 한풀 꺾여 남은 라운드 승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올 시즌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선 도로공사가 모두 승리했다.

도로공사는 11월 8일 1라운드 홈경기에서 3-2로 승리했고, 같은 달 15일 안방에서 열린 2라운드 대

결에서도 3-1로 이겼다.

현대건설로선 안방 첫 맞대결에서 두 차례 패배를 안긴 도로공사에 설욕을 노린다.

우승 후보로 떠오른 도로공사의 강점은 레티치아 모마 바소코(등록명 모마)와 강소희, 타나차 쑥솟(등록명 타나차)으로 이어지는 막강 삼각편대의 화끈한 공격력이다.

올 시즌 득점 부문 2위와 8위, 10위에 올라 있는 모마와 강소희, 타나차에게 공격이 분산되기 때문에 상대팀으로선 도로공사의 화력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도로공사는 올 시즌 팀 득점(1448점)과 공격종합(성공률 41.5%), 오픈공격(성공률 36.5%), 후위공격(성공률 48.5%) 등 거의 모든 공격 부문 지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또 여자부 블로킹 부문 1위(세트당 0.844)를 달리는 김세빈과 베테랑 배우나, 신인 최대어 미들블로커 이지윤이 지키는 중앙도 든든하다.

여기에 리시브 부문 1위(효율 48.8%)인 리베로 문정원은 단단한 수비력을 자랑한다.

현대건설은 높이의 강점을 앞세워 도로공사의 화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팀 득점 부문 3위(1306점)에 랭크된 현대건설은



여자 프로배구 2025-2026 V리그 2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1위 한국도로공사(왼쪽)와 2위 현대건설이 18일 수원에서 눈길 끄는 맞대결을 벌인다.

〈KOVO 제공〉

팀 블로킹 부문에선 세트당 2.84개를 기록하며 부문 선두를 달리는 중이다.

베테랑 미들 블로커 듀오인 양효진, 김희진은 물론 외국인 거포 카리 가이스버거(등록명 카리)와 아시아 쿼터 자스티스 아유치(등록명 자스티스)도 블로킹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카리와 자스티스는 도로공사와 2라운드 맞대결 때 각각 24득점, 17득점으로 쌍포 역할을 해냈다.

도종 공격수 정지윤의 스파이크가 살아난다면 도

로공사의 삼각편대인 모마-강소희-타나차와 승부

를 겨루볼 만하다.

특히 현대건설은 정교한 볼 배급으로 세트 부문

1위(세트당 11.3개)를 달리는 '코트 사령관' 김다인이 경기를 조율하고 있어 어느 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3라운드의 최고의 백매치로 꼽히는 도로공사와 현대건설의 외나무다리 대결에서 어느 팀이 웃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1분55초34 쾌속 질주…이주호, 배영 200m 한국신기록 경신

한국 수영대표팀 맹현 이주호(30·서귀포시청·사진)가 두 달 만에 배영 200m 한국 기록을 또 세웠다.

이주호는 지난 16일 오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2025 헨콕 프로스팅 퀸즐랜드 선수권대회 남자 배영 200m 결승에서 1분55초34의 한국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10월 18일 부산에서 열린 제106회 부산 전국체육대회에서 작성한 종전 자기 최고 기록이자 롱코스(50m) 한국기록(1분55초60)을 불과 두 달 만에 0.26초 더 앞당겼다.

특히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배영 200m 결승에서 쉬자위(중국)가 금메달을 딸 때 세운 기록(1분55초37)보다도 빨라서 내년 아이다·나고야 아시안게임 우승 기대감을 키



웠다.

당시 이주호는 쉬자위에게 1초17 뒤진 1분56초 54의 한국 신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주호는 롱코스는 물론 소트코스(25m) 배영 200m 한국 기록(1분51초24)도 보유한 우리나라 남자 배영의 간판선수다.

이주호를 포함한 경영 국가대표 14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25 전략종목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3일 호주로 국외 훈련을 떠났고, 그동안의 훈련 성과 확인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브리즈번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에 출전했다.

예선에서 2분00초10으로 가볍게 결승에 오른 이주호는 대한수영연맹을 통해 "2022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기록을 넘어섰고 올해 아시아 1위 기록인데,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겠다"면서 "1분 54초대를 목표로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꼭 금메달을 따고 싶다"고 각오를 전했다. /연합뉴스

미래 국가대표 키운다…전남도체육회, 완도고 역도부 지원

패딩·운동화 등 동계 물품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가 완도고 역도부에 체육 물품을 선물했다.

도체육회는 지난 16일 완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완도군체육인 한마음대회'에서 완도고 역도부 소속 선수 5명에게 패딩과 운동화 등 동계 물품을 지원했다.

도체육회는 매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회공익사업자원을 마련해 공익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에는 완도고의 '산티클로스'가 됐다.

완도고 역도부(감독 왕지상·지도자 손정희)는 이안토니·황서혁(이상 2년), 김태양·추연성·박상규(이상 1년) 등 총 5명의 선수로 구성됐다.

김태양(89kg급)은 지난 10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고, 81kg급의 이안토니는 은메달 1, 동메달 2개를 수학했다.

김태양은 전국체전에 이어 10월 바레인 마나마



전남도체육회가 지난 16일 완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완도군체육인 한마음대회'에서 완도고 역도부에 체육 물품을 전달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에서 열린 2025 청소년아시안게임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충남 서천에서 진행된 2025 한국종교 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완도고의 활약이 빛났다.

96kg급의 추연성이 3관왕에 올랐고, 73kg급의 박상규는 은메달 1개, 67kg급의 황서혁은 동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프, 포브스 '최고 수입 여성 선수' 2연속 1위

올해 3300만 달러 수입…테니스 선수들 10위권에 8명 포진

여자 테니스 세계 3위 코코 고프(미국)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들인 여성 스포츠 선수' 순위에서 2년 연속 1위에 올랐다.

고프는 16일(현지시간) 발표된 올해 순위에서

도 3300만 달러(약 487억원)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프랑스오픈에서 생애 두 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WTA 1000 대회인 우한오픈에서도 정상에 오른 고프는 경기 관련 수입으로는 800만 달러를 베는 데 그쳤으나 경기 외 수입으로 2500만 달러나 벌어들였다.

고프는 이달 초 스포티코가 발표한 순위에서도 1위에 오른 바 있다. 스포티코가 추산한 고프의 올해 수입은 3100만 달러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포브스 순위표에서 테니

스 선수들이 강세를 보였다. 고프를 포함해 8명의 테니스 선수가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 테니스 세계 1, 2위에 올라가 있는 아리나 사발렌카(벨라루스)와 이가 시비옹테크(폴란드)가 차례로 포브스 순위표의 2, 3위에 자리했다.

사발렌카는 3000만 달러, 시비옹테크는 2510만 달러를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테니스 선수로는 5위 정진원(2260만 달러·중국), 6위 매디슨 키스(1340만 달러·미국), 공동 8위 오사카 나오미(일본), 엘레나 리바카나(이상 1250만 달러·캐나다), 10위 제시카 패글라(1230만 달러·미국)가 이름을 올렸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프리스티얼 스위스 선수 구아이링(중국)이 2310만 달러로 4위, 여자 골프의 넬리 코다(미국)가 1300만 달러로 7위였다.

〈연합뉴스〉



줄거운

문화
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기획연주회
1229 여객기 참사 추모음악회
'진혼, 기억'

일시 : 2025-12-26(금) 19: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1



광주예술의전당 특별기획연주회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음악회
'179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일시 : 2025-12-27(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41